

신규간호사 교육훈련 의무화 ... 정부 차원 재정지원 필요

의료기관의 간호실습교육 의무화 의료법에 명시해야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연속 정책간담회의 세 번째 프로그램이 '신규간호사 현장적응을 위한 간호교육 개선방안' 주제로 열렸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 주최,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1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윤종필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대학생들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교육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받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간호대학들이 실습병원을 구하지 못하는 등 실습교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장교수 인력도 충분치 않아 미래 환자 안전을 책임지는 예비간호사 인력 양성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연말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실습교육 지원 예산으로 30억원이 반영됐다"면서 "현장 요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처음으로 예산이 반영됐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간호대학의 실습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신규간호사 이직률은 2016년 기준 평균 34%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신규간호사의 높은 이직은 간호사 인력 부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신규간호사들의 간호전문성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간호사들의 업무적응을 돕고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원 속에서 교육을 받도록 해줘야 한다"면서 "신규간호사들이 자신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함께 돕고 지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환자안전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신규간호사의 현장적응을 위한 간호교육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한 신수진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신규간호사로 성공적으로 적응해 지속적으로 근무하게 만드는 것은 세계적인 관심사"라면서 "대학에서의 실습교육과 함께 병원현장에서 이뤄지는 직무교육이 연계성과 연속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신규간호사의 현장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병원-대학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습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의료기관에서 간호실습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

신수진 교수는 "간호대학은 학생들의 실습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



간호사 지속 근무환경 마련을 위한 연속 정책 간담회
③신규간호사 현장적응을 위한 간호교육 개선 방안
2018년 1월 29일(목) 14:00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주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윤종필 | 주관 대한간호협회

국회 '연속 정책간담회' ③ 신규간호사 현장적응을 위한 간호교육 개선방안

윤종필 국회의원 주최-대한간호협회 주관
간호학과, 실습병원 반드시 확보해야

임상실습지도자 표준화 및 보상체계 강화

의료기관인증평가에 간호실습교육 반영해야

습기관의 양적인 부족은 물론 지역적 불균형이 심각한 것이 문제"라면서 "실습 부족으로 인해 병학 중에 실습을 하거나 학교가 위치한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실습을 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실습교육이 관찰과 구두설명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환자안전과 권익이 증진됨에 따라 직접간호술기를 시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실습기관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간호실습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대학설립운영규정도 개정해 자연계열로 분류된 간호학과를 의학계열로 전환하거나 간호계열로 독립해 부속병원 또는 임상실습 협력병원을 갖추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속병원이 없는 간호학과가 실습병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며, 학생 당 교원 수에 대한 기준 또한 간호교육 특성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간호대학생과 신규간호사를 지도할 수 있는 임상실습지도자를 확보하고, 현장교

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신수진 교수는 "병원현장에서 자격을 갖춘 임상실습지도자가 부족해 면대면 밀착 지도가 이뤄지지 못한 채 학생이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임상실습지도자에게 기존 간호사 업무를 줄여주지 않은 채 학생 교육업무를 추가로 부여하고 있어 효율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상실습지도자들이 학생 실습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과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임상실습지도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해야 한다"면서 "간호대학에서는 현장실습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교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올해부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연간 3개 이상의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간호실습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 간호기술 역량을 갖춘 경우 가점을 주도록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라면서 "앞으로 의료기관인증평가 평가기준을 개선해 간호실습교육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교육병원 인증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셋째, 신규간호사 교육훈련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신수진 교수는 "신규간호사에게 표준화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일정기간 동안 환자수 배정 감소 등을 통해 업무강도와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면서 "신규간호사를 위한 교육훈련이 의무화돼야 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비용과 인력보강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정규숙·주혜진 기자

신경림 간호협회장 후보 선거공약 발표

"간호혁신과 열정으로, 간호의 새로운 희망과 미래로의 도약"

대한간호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민숙)는 제37대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신경림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가 제출한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회장단 후보, 이사 및 감사 후보의 자기소개서와 출마의 소견을 발표했다.

회장 후보 프로필 및 선거공약 .. 2면

이사 및 감사 후보 프로필 3면

신경림 회장 후보 공약

기호 1번 신경림 회장 후보는 선거공약에서 '간호혁신과 열정으로, 간호의 새로운 희망과 미래로의 도약!'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4대 전략과제와 핵심공약 12가지를 제시했다.

4대 전략과제는 다음과 같다. △대국민 간호정책의 위상을 제고하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간호사가 활기차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간호현장을 만들겠습니다. △협회 100년 역사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간호백년대계를 준비하겠습니다. △지부 중심으로 조직 혁신, 산하단체 중심으로 정책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핵심공약 12가지는 다음과 같다. △거버넌스(간호정책심의위원회) 신설을 통해 대국민 간호정책의 위상 제고 △보건의료면허전 분야, 노동조합과의 정책연대를 통한 간호법 제정 △의료기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지역사회로 확대 △병동간호관리체계 혁신으로 간호사 1일 8시간 근무 준수 △임원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인력 중심으로 임원료 수가 전면 개편 △간호사의 자긍심 제고와 공공의료기관 간호체계 및 경쟁력 제고 △보건의료 대표조직의 위상에 부합하는 간호사 회관 건립 △투명하고 안정된 재정관리를 위한 대한간호협회 경영 혁신 △새로운

간호 100년을 설계할 수 있는 토대로서 대한간호협회 100년사 편찬 △지부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로 협회 조직 운영체계 혁신 △산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로 간호정책 혁신 △보수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간호현장 중심의 보수교육 체계 혁신.

임원 후보 명단

제37대 대한간호협회 회장 선거에 신경림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가 단독 출마했다. 신경림 회장 후보는 러닝메이트 제1부회장 후보로 박원희 전 병원간호사회장, 제2부회장 후보로 김영경 부산간호대학 간호대학장을 지명했다.

신출직 이사 후보는 다음과 같다. △강윤희(이화여대 간호대학 문분야, 노동조합과의 정책연대를 통한 간호법 제정 △의료기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지역사회로 확대 △병동간호관리체계 혁신으로 간호사 1일 8시간 근무 준수 △임원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인력 중심으로 임원료 수가 전면 개편 △간호사의 자긍심 제고와 공공의료기관 간호체계 및 경쟁력 제고 △보건의료 대표조직의 위상에 부합하는 간호사 회관 건립 △투명하고 안정된 재정관리를 위한 대한간호협회 경영 혁신 △새로운

감사 후보는 다음과 같다. △김희순(연세대 간호대학 교수) △박순화(전 국군간호사관학교 학교장) △이용규(고려대 구로병원 간호부장).

임원선거 2월 21일

임원선거를 통해 앞으로 2년(2018~2019년) 동안 대한간호협회를 이끌어 갈 새 회장과 선출직 이사 8명, 감사 2명을 선출하게 된다. 선거는 오는 2월 21일(수)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리는 제85회 대한간호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실시된다.

임원선거에서 '회장'은 재직의원(임원 및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다.

'선출직 부회장'은 회장 당선자가 출마 시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제1부회장과 제2부회장 후보를 당선자로 정하게 된다.

'당연직 부회장'으로는 병원간호사회 회장이 확정됐다. 간호협회 정관에 따르면 당연직 부회장은 간호협회 회원 수의 25% 이상 이 회원으로 등록된 지부 및 산하단체의 장으로 하도록 명시돼 있다.

'선출직 이사'는 득표수에 따라 8명을, '감사'는 2명을 각각 당선자로 정하게 된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선거를 앞두고 회원들에게 공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창을 간호협회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에 개설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당신이 늘 쓰는 것이기에

우수한 화장품을 만드는 기준, CGMP
대한민국 최초 CGMP 1·2호 인증 획득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좋은 화장품,
한 걸음씩 우직하게 내딛는 우보천리의 정신으로
한국콜마가 만들어 갑니다.

